

**예배자는 관객이나 시청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찬양대, 임사 맡은 자들은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주체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당사자입니다. 예배에는 방관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레 1:2).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대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피, 곧 대속의 죽음으로 주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가져온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의 피가 튀고, 그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꿈틀거림과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죽음을 오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을 되새기며,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에도 이러한 묵상과 회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드리는 자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레 1:3).** 흠 없는 제물은 값이 많이 나갔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시간과 정성도 필요했습니다. 예배에는 철저한 준비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인지, 어떤 제물을 준비했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든 시종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창 4:3-4; 히 11:4). 만일 가인이 땅의 소산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영·혼·몸이 예배를 위해 철저히 준비되었는지를 보십니다.

나는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 ① 예배를 위해 나의 영·혼·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② 예배를 통해 죽음과 소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